

일제강점기 사찬 지리지 『朝鮮寰輿勝覽』 연구*

- 경남 지역 한시 및 작가를 중심으로

徐正和**

「차 례」

1. 머리말
2. 경남 지역의 한시 및 작가 분포 현황
3. 경남 지역의 한시 발굴과 진위 감별을 위한 '준거집단' 역할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일제강점기 사찬 지리지 『朝鮮寰輿勝覽』의 경남 지역 20개 군에 수록된 한시 및 작가를 개관하고 문학적 접근의 유효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조선환여승람』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방대한 題詠詩를 수록하고 있다. 그 중 울산군은 19세기 이후 작가가 많고, 함안군은 조선 전기와 중기에 활동한 인물이 다수 있었다. 수록된 한시는 이병연 자신을 포함하여 그와 개인적 인연이 있는 김운환, 이석형의 시가 많았다. 또한 이항은 경남 지역에서도 위상과 영향력이 높았으며, 유호인, 이정, 윤현, 김진호, 권순도, 이정혁, 최중민 등 경남 지역 출신들의 시가 많았다. 『조선환여승람』은 해당 지역의 작가와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지역성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조선 전·중기의 金孝貞과 李繼俊의 경우 『조선환여승람』에만 유일하게 수록된 한시가 있었다. 지리지에 전승되는 이항의 영남루 제영시의 위작 여부를 감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산청군 新安樓 聯句詩의 작자를 감별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했다. 차후 충분한 연구 기간을 확보하여 129개 군 전체에 대한 제영시 현황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조선환여승람』, 이병연, 한시 선집, 한시 발굴, 인문지리지, 지역성 강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교수 / spr9015@naver.com

1. 머리말

전근대 시기에 간행된 지리지는 산천, 도로, 군사지역 같은 지리 정보만을 수록하는 서양식 지리지보다 내용이 훨씬 풍부하다. 이를테면 생원·진사 합격자, 名宦, 효자, 열녀 등의 인물 정보는 물론이고 산천, 누정, 사찰 등을 제재로 삼아서 지은 기문과 한시 같은 문학 작품도 수록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리지 개념으로는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전근대 시기에 간행된 지리지를 ‘인문지리지’라고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문지리지로 『新增東國輿地勝覽』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12)에 梁誠之·盧思愼 등이 50권으로 편찬한 『東國輿地勝覽』을 증수하여 1530년(중종25)에 李荇·洪彦弼 등이 55권 25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조선 전기의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사회·민속·예술·인물 등 지방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을 지닌 백과전서식 서적으로, 조선 전기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세종 때의 지리지가 지녔던 토지의 면적·조세·인구 등 경제·군사·행정적인 측면이 약화되고, 인물·예속·시문 등이 강화되었다.¹⁾ 사대부 정권이 확립되고 또 국가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국가의 문화 역량을 선양하기 위해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조선환여승람』은 일제강점기 때 松石 李秉延(1894~1977)이 전국 13도 220개 군 가운데 129개 군을 조사하여 편찬한 백과전서식 지리지이다. 이병연은 우리나라의 지리지 중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최고작이라고 여겼는데 오래도록 후속작이 나오지 않는 것을 개탄했다.²⁾ 그래서 본인 스스로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 군현의 興替와 沿革, 배출된 인물 등을 기술하여 지리지를 만들었고, 인문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전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환여승람』이라고 명명하였다.³⁾ 게다가 역대 문인들의 시문은 문장의 寶鑑이 되어 백성과 풍속을 교화하는 요체라고 간주하여⁴⁾ 『조선환여승람』이 인문지리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

1) 변주승(2006), 435~464면.

2) 李秉延, 『朝鮮輿地勝覽』, 『朝鮮輿地勝覽跋』, “其中最尤著者即輿地勝覽耳. 歷代之地理人物瞭然可詳, 而纂輯日久, 續述尙闕, 是其欠耳.”

3) 李秉延, 위의 글, “先續海東輿宇之興替沿革, 次述朝鮮輿地之輩出人物, 其規少有異於舊本, 故不敢全有其名, 改籤以輿勝覽.”

4) 李秉延, 위의 글, “歷代之名蹟, 班班可考, 而恍然若文章之寶鑑, 則於青邱一幅爲化民成俗之要.”

식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조선환여승람』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계승한 인문지리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문학적 관점에서 『조선환여승람』의 특징을 추출하고 문학적 의의를 논하려고 한다.

15세기 이전은 한문학 연구의 대상 자료가 부족한 시기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실되었거나 문집이 없는 작가들의 시문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개인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을 수록하여 문집을 보완하는 기능도 하지만 문집이 남아 있지 않은 작가들의 경우 소략하나마 문집 역할도 하였다. 일례로 고려 시대 김극기는 시문집 『김거사집』을 간행했으나 조선 중기 이후 일실되어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해스럽게도 『보한집』, 『동문선』 등에 시문이 선집되어 있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220여 수의 시가 수록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그의 유고집을 편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⁵⁾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5백여 년 이후 편찬된 『조선환여승람』 역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했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환여승람』에는 개인 문집에 미수록된 작품뿐만 아니라 문집이 없는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이 존재하여 한문학 연구의 자료집 역할도 한다. 아래에서는 『조선환여승람』의 문학적 접근의 유효성을 제기하고자 경남 지역 20개 군에 한정하여⁶⁾ 『조선환여승람』에 수록된 한시 및 작가를 개관하고 문학적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5) 김진곤 편(1997). 참고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시문을 작가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성과는 成均漢文學教室(1990).

6) 『조선환여승람』에 실린 군은 충남 14, 충북 9, 경북 17, 경남 20, 전북 13, 전남 24, 강원 9, 황해 6, 함남 8, 함북 6, 경기·평남·평북 각 1개군 등 모두 129개군이다. 방대한 분량을 다루기에는 본고의 지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 지역을 추출하여 『조선환여승람』의 대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20개 군을 수록하고 있는 경남 지역은 대표 군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기문의 경우 기문이 있다는 정보만 제시하거나 기문이 있더라도 전문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작품이 많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경남 지역의 한시 및 작가 분포 현황

『조선환여승람』의 체제를 살펴보면 ①序文 ②目錄 ③朝鮮地理總說 ④道內地理總說 ⑤地理部 ⑥人物部 ⑦跋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29개 郡을 하나로 묶어 한 질의 총서로 간행하지 않고 郡別로 쪼개어 129개의 책으로 편집하였다. 각 군의 구성을 보면 ①, ②, ③, ④, ⑦은 공유하되 ⑤, ⑥은 해당 지역의 내용으로 채워 넣었다. 군별로 편집했다는 점에서 읍지의 성격이 강하지만 총설 및 서·발문을 군마다 넣었다는 점에서 叢誌의 성격도 함께 갖추고 있다.⁷⁾

『조선환여승람』을 이처럼 독특하게 편집한 것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관찬 지리지라 아니라 개인이 주관하는 사찬 지리지라는 점, 곧 방대한 양의 지리지를 편집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 간행하더라도 거질의 지리지보다 군별로 쪼개어 편집하는 것이 판매에 유리했기 때문이다.⁸⁾ 실제로 『조선환여승람』은 1930년대에 10년에 걸쳐 군별로 나누어서 간행하였고, 인기 좋은 군의 지리지는 재간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부여군이나 논산군의 경우는 1950년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재간행하기도 하였다.⁹⁾

道學篇：先正，儒賢，學行，隱逸 遺逸，儒行，文行

德業篇：勳臣，原從勳，功臣，名臣，名宦，名官，清白，文章，詩家，筆苑，畫家，行誼，賑睦

三綱篇：忠臣，孝子，貞烈

科宦篇：文科，司馬，武科，蔭仕，壽職，贈職，附名釋

7) 『조선환여승람』을 학계에 본격적으로 알린 것은 허경진(2003)과 허경진·강혜중(2012)에서 『조선환여승람』의 체제 및 구성, 전통시기 지리지와의 비교, 상업적 출판물로서의 성격과 의의 등을 서술하였다. 본고에서 서술하는 『조선환여승람』의 체제 및 상업적 성격에 대해서는 허경진의 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

8) 엄밀히 말해 『조선환여승람』은 사찬이라는 점에서 편향성, 임의성, 대상 범위의 협소성 등의 한계가 있다. 또한 제영시를 포함한 人物部를 강화하여 지역 유림의 爲先의식을 자극한 점과 군별로 쪼개어 편집한 점에서 상업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조선환여승람』에 수록된 방대한 양의 제영시와 인물군은 각 지역의 인문지리 정보를 새롭게 발굴하고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9) 부여군과 논산군은 국문 현토가 달린 국한문 혼용체로 바뀌어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일본이 연합국에게 항복한 사실,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한 사실 등이 추가되었고, 순국지사 항목도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허경진·강혜중(2012), 248~249면.

인용문은 『조선환여승람』 목록 중에서 人物部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인물을 도학, 덕업, 삼강, 과환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분하여 하위 항목을 설정한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병연은 『조선환여승람』을 간행하기 전부터 여러 책자의 출판 과정을 보고 배우며 간행에도 참여하였는데, 주로 조선의 인물을 다룬 『朝鮮彝學衿譜』, 『全南靑衿錄』, 『全鮮靑衿錄』, 『人物勝覽』 등의 서적이었다.¹⁰⁾ 『조선환여승람』에서 향촌의 인물에 대한 항목이 세분화되고 분량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출판 경험 때문이었다.

『조선환여승람』은 군별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인물부를 강화하여 지역 출신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게다가 인문지리지의 대표격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버금가는 제영시를 수록하고 있다. 이것을 문학 연구와 관련시키면,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거나 문집에 수록된 작품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경남 지역의 제영시 중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지 않는 작품과 작가의 현황을 제시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¹¹⁾

연번	군명	題	首	연번	군명	題	首
1	거창군	22	23	11	울산군	36	36
2	고성군	23	30	12	의령군	8	8
3	元機張	17	17	13	진주군	21	21

10) 부친李文(1+原)이 조선의 주요 가문들의 계보를 수록한 『朝鮮簪纓譜』를 출간할 때 이를 도왔고(1912, 19세), 숙부李석(1+奭)이 조선의 인물을 충신, 공신, 효자, 순절열녀, 효녀, 賢媛, 女行, 유림, 명신, 문장, 詩家, 筆苑, 賑陸 및 가문의 世譜로 구분하여 수록한 『朝鮮彝學衿譜』의 책자 편성을 도왔다(1919, 26세). 광주향교에서 전남의 유생과 선비의 명단을 기록한 『全南靑衿錄』을 보고(1921, 28세) 이를 확대하여 『全鮮靑衿錄』을 간행하기로 계획하고 일부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人物勝覽』 2책을 간행하려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여기에 산천과 풍토를 추가하여 『조선환여승람』이라 개명한 뒤 허가를 받았는데(1929, 36세), 이것이 『조선환여승람』 간행의 시작이다. 이병연의 출판 활동에 대해서는 김건우(2022), 156~163면.

11)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1914년 4월 1일에 대대적으로 府郡面 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13도 12부 329군이 13도 12부 220군으로 조정되었다. 게다가 1930년대의 『조선환여승람』과 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행정구역과 관할지역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특정 유적의 제영시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남 지역 전체를 상호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제영시의 측면에서 보자면,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의 제영시 숫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고 『조선환여승람』보다 적다. 이 때문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미수록 한시 현황을 파악하여 『조선환여승람』의 문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엿보려 한다.

4	김해군	15	22	14	창녕군	18	18
5	남해군	11	11	15	창원군	3	3
6	동래군	16	16	16	통영군	14	14
7	밀양군	17	17	17	하동군	27	27
8	사천군	14	14	18	함안군	35	35
9	산청군	27	34	19	함양군	15	15
10	양산군	25	25	20	합천군	3	3

총 367題 389首

〈표1〉 경남 지역의 『신증동국여지승람』 미수록 한시 현황

위의 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지 않은 작가의 한시 수를 제시한 것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 간행 이전에 활동했는데도 수록되지 않은 경우와 『신증동국여지승람』 간행 이후에 활동했기 때문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미수록 제영시는 울산군이 36수, 함안군 35수로 많은 편에 속하고, 창원군과 합천군이 3수로 가장 적다.

먼저 미수록 시가 적은 창원군과 합천군에 대해 살펴본다. 창원군의 경우 모두 근현대 인물의 시이다. 月影臺에 대해 『조선환여승람』의 편자인 이병연과 『조선환여승람』에 서문을 쓴 金閔煥(?~?)의 시 각 1수, 龍山齋에 대해 유학자이자 의병장인 金道和(1825~1912)의 시¹²⁾ 1수가 수록되어 있다. 합천군의 경우 淨襟堂에 대해 金駟孫(1464~1498), 籠山亭에 대해 金鎭祐(1847~1924), 二友齋에 대해 鄭秀吉(?~?)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김일손의 시는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고¹³⁾ 김진호와 정수길은 근현대의 인물이다.

타 군에 비해 창원군과 합천군의 수록한 한시가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일례로 합천군의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총 30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조선환여승람』에는 총 11수가 수록되어 있다.¹⁴⁾ 이 중 해인사 항목에

12) 김도화의 시는 『拓菴集』 권2에 「次龍山齋韻」으로 수록되어 있다.

13) 김일손의 시는 『濯纓集』 권5에 「與睡軒登觀水樓」로 수록되어 있다.

14)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가야산(이색1), 음풍뢰(강희맹1), 자필암(강희맹1), 홍류동(김종직1), 정심루(이원1, 윤상1, 서거정1), 함벽루(조준1 민사평1 정이오1), 매월루(조위2 강훈3), 해인사(홍간1, 염정수1, 권근1, 배중부1 이승인1, 강희맹2, 김종직3), 題詩石(최치원1, 김종직1), 제영(박원형1 김수녕1 유사눌1)에 총 30수가 수록되어 있고, 『조선환여승람』에는 가야산(이색1), 홍류동(최치원1), 정금

洪侃, 廉廷秀, 권근, 이승인, 강희맹, 김종직 등의 시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고, 이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輿地圖書』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그럼에도 『조선환여승람』에는 사적에 대한 설명만 있고, 해인사를 읊은 시가 1편도 실려 있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시들은 오래도록 회자되고 또 여타의 기록물에 다수 등장하기 때문에 굳이 『조선환여승람』에 수록하지 않고 당대의 인물을 중심으로 수록했다고도 할 수 있으나, 1편도 수록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미수록 시가 많은 울산군과 함안군에 대해 살펴본다. 울산군에는 작가 28명의 시 36수가 수록되어 있다. 生年을 기준으로 보면 19세기 이전의 작가는 金宗直, 楊熙止, 尹廷璘(2), 鄭崑壽, 金職孫, 權瑒(3), 尹秉顥, 尹秉頤, 洪直弼 등 9명 12수이고, 19세기 이후 작가는 19명 24수로 근현대 작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근현대 작가의 경우 울산군에만 수록된 작가가 대부분인데, 3수를 지은 李正赫과 2수를 지은 李時俊·趙性惠은 타 지역에 보이지 않고 울산군에만 보인다. 『조선환여승람』이 해당 지역의 작가와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지역성을 제고하려고 했던 것과도 잘 부합한다.

함안군에는 작가 33명의 시 35수가 수록되어 있다. 許傳(1797~1886), 趙性源(1838~1891), 沈禮澤(1844~1909), 郭鍾錫(1846~1919), 趙昺奎(1846~1931), 文在桓(1853~1921), 吳在善(1871~1954) 등 13명의 작가가 주로 19세기 이후에 활동하였다. 『조선환여승람』의 특징 중 하나가 근현대에 활동한 작가들의 시를 다수 수록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점은 울산군의 현황과도 일치한다.

또한 함안군에는 조선 전기와 중기에 활동한 인물들의 시도 다수 있다. 생년 기준으로 보면 17세기 이전에 태어난 작가로 魚變甲(1381~1435), 李季麟(1401~1455), 趙旅(1420~1489), 洪允成(1425~1475), 安琛(1445~1515), 魚得江(1470~1550), 金安國(1478~1543), 鄭士龍(1491~1570), 趙士秀(1502~1558), 李楨(1512~1571), 鄭之麟(1520~1600), 洪聖民(1536~1594), 羅翼南(1558~1646), 李益亨(1573~1633), 朴道元(1593~1648), 朴德孫(?~?), 朴盎(?~?), 文學庸(?~?) 등이 확인되며,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 지역과 관련이 깊다.

당(김일손1), 농산정(김진호1), 이우재(정수길1), 제영(박원형1, 김수녕1, 이방한1, 이구1, 강훈1, 이원1)에 총 11수가 수록되어 있다.

일례로 어변갑은 함안 출신으로 응교·지제교·집현전 직제학 등을 지낼 정도로 문헌에 능했는데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관직을 버리고 함안으로 돌아왔다. 그의 시는 『東文選』에 「題壁上」(권10), 「題池浦家壁」(권22)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聞慶縣, 聞慶縣, 宜寧縣에 일부가 남아 있다. 그런데 『조선환여승람』에는 『동문선』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수록되지 않은 시, 곧 함안의 객관 동쪽에 있는 淸範樓를 읊은 시가 있다.¹⁵⁾

저자	생몰년	작품수	활동 지역
李秉延	1894~1977	18	다수 지역
李滉	1501~1570	6	거창2 밀양1 사천1 진주2
曹植	1501~1571	6	김해1 산청2 진주1 하동2
金宗直	1431~1492	5	김해1 밀양2 울산1 함양1
魚得江	1470~1550	5	고성1 산청2 진주1 함안1
盧禎	1518~1578	5	하동1 함양4
金閔煥	?~?	5	거창1 남해1 울산1 창원1 하동1
俞好仁	1445~1494	4	함양4
李楨	1512~1571	4	고성1 사천2 함안1
尹暄	1573~1627	4	동래4
宋秉璫	1836~1905	4	김해1 통영1 하동2
李石亨	1415~1477	3	밀양2 진주1
李舜臣	1545~1598	3	통영2 하동1
趙任道	1585~1664	3	의령1 창녕2
權瑨	1639~1704	3	울산3
金鑑祐	1847~1924	3	산청2 합천1
權順度	1870~1934	3	양산3
李正赫	?~?	3	울산3
崔仲敏	?~?	3	사천3

〈표2〉 작가별 한시 창작 횟수와 지역 현황(3회 이상)

15) 청범루에 대해서는 이계린과 홍성민의 시도 있다. 이계린은 1445년(세종27) 7월 11일에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되고, 홍성민은 1580년(선조13) 2월 1일에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는데, 함안에 공무를 보러 왔다가 제영시를 남긴 듯하다. 이계린은 이색의 손자로 현재까지 문집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그의 시는 『동문선』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아닌 『조선환여승람』에만 1수 보인다. 홍성민의 시는 『拙翁集』 권4에 「次咸安東軒韻」으로 수록되어 있다.

먼저 『조선환여승람』의 편자 이병연과 『조선환여승람』 간행에 도움을 준 김윤환, 이병연의 선조인 이석형에 대해 살펴본다.

이병연은 『조선환여승람』을 편찬하기 위해 전국을 직접 다니면서 방문하는 곳마다 시를 남겼는데, 그의 문집인 『송석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영시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경남 지역에서 창작한 그의 시는 압도적으로 많다. 이병연의 시는 모두 18수이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남 20개 군 중 14개 군(거창2, 기장1, 김해1, 남해1, 동래2, 밀양1, 사천1, 양산1, 울산2, 진주1, 창녕1, 창원1, 통영1, 하동2)에 시를 남겼다. 일례로 동래군의 沒雲臺의 처음 이름은 沒雲臺였으나 임진왜란 때 鹿島萬戶 鄭運이 이곳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雲’을 ‘運’으로 바꾼 사실을 지적한 뒤 그 감회를 시로 읊었다.¹⁶⁾

김윤환의 시는 5수 수록되어 있다. 5수를 지은 김종직, 어득강, 노진이 모두 경상도 출신으로서 당대의 명망가였음을 감안할 때 김윤환의 시 5수가 수록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김윤환은 內藏院卿을 지낸 인물인데, 『조선환여승람』의 발문도 썼고, 이병연이 『전선청금록』을 출간할 때에는 300여 원을 후원하였다.¹⁷⁾ 이병연은 그의 회갑을 축하하는 시를 지어 주기도 하였는데,¹⁸⁾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 다수의 시가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김윤환은 거창, 남해, 울산, 창원, 하동에 각 1수의 시를 지었는데, 남해군의 忠烈祠와 창원군의 月影臺 항목에는 이병연의 시와 그의 시가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이석형은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한성부, 수원도호부, 경주부, 진도군, 해남현 등에 그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창원도호부의 碧寒樓 항목에도 시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지 않은 밀양의 영남루·召樓, 진주의 矗石樓에 대한 시를 『조선환여승람』에 수록하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남 지역에 이석형의 시가 3수 수록되고, 밀양의 소루에 이석형과 이병연의 차운시가 나란히 수록된 것은 그가 선조라는 이유가 작용하였다.¹⁹⁾ 이석형의 시는 타 지역에도 다수가 실렸다. 특히 삼척 죽서루에 이석형의

16) 李秉延, 『松石集』, 「沒運臺初名沒雲臺壬亂鹿島萬戶鄭運戰歿于此因改名有感」.

17) 김윤환이 후원금을 낸 사실은 김건우(2022), 157면.

18) 李秉延, 『松石集』, 「前內藏院卿清庵金閔煥壽宴效蘇長公大江東詩體十八句爲賀」.

19) 이병연이 선조를 현양하기 위해 문헌을 편찬한 것에 대해서는 김건우(2022), 163~172면.

시, 이병연의 증조부 李暉, 이병연의 시가 차운시의 형태로 수록되었는데, 이병연이 선조 현양에 힘쓴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병연 다음으로 시를 많이 창작한 사람은 이황과 조식이다. 이 지역이 경남 지역임을 감안하면 조식의 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퇴계집』과 『남명집』을 비교할 경우 이황이 창작한 시가 조식보다 물리적으로 많다는 것이 그 원인이겠지 만, 경남 지역에서도 이황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수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조선 후기의 지리지 『여지도서』에도 이황의 시가 시가 밀양, 진주, 창원, 함안, 安義, 三嘉에 수록된 반면에 조식의 시는 三嘉縣, 安義縣, 丹城縣에만 수록된 것과도 유사한 현상이다.

그 외 유효인, 이정, 윤원 등과 근대의 김진호, 권순도, 이정혁, 최중민은 경남 지역 출신 인물들이다. 송병선의 시는 4수 모두가 『淵齋集』에 수록되어 있는데,²⁰⁾ 경남 지역을 유람할 때 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권해는 울산군에 3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1679년(숙종5) 청주로 귀양 갔다가 1686년 彦陽縣으로 移配된 후에 지은 것이다.

3. 경남 지역의 한시 발굴과 진위 감별을 위한 ‘준거집단’ 역할

지리지(또는 읍지)가 해당 지역의 상황과 특징을 세밀하게 반영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지리지 내에는 지역의 명소와 관련되거나 지역 출신 인물의 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특히 문집을 남기지 않은 작가들의 시가 지리지에 수록되고, 지리지를 통해 후대의 지리지에 수록되어 전승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유일하게 지리지에만 남아 있는 시가 있게 되는데, 『조선환여승람』에도 이런 시가 다수 있다. 아래에서는 새롭게 발굴된 한시의 사례를 몇 가지 들도록 한다.

거창군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작가 18명의 시 23수가 수록되었다.²¹⁾

20) 「智異山」과 「露梁懷李忠武」 권1에, 「金海述懷」과 「白雲菴」 권2에 수록되어 있다.

21) 이 중에서 李繼俊, 李滉, 鄭蘊, 李良熙, 李秉延의 시가 각 2수이다.

근대 인물인 宋秉珣(1839~1912), 李良熙(?~?), 金閔煥(?~?), 이병연의 시 6수가 수록되어 있고,²²⁾ 전근대 인물로는 정사룡, 林薰, 이황, 成彭年, 鄭必達, 김창흡, 鄭榮振 등의 시 17수가 수록되어 있다.

골짜기 어귀에 찬 까마귀 모이니
 어슴푸레하게 해지는 때로다
 눈은 바람 앞에 흩날리고
 산은 구름 너머 희미하네
 바위 아래 문은 애초에 닫혔고
 소나무 사이 학은 이미 돌아갔네
 고요함 속에 흥취가 있거늘
 이를 아는 사람이 드물구나
 洞口寒鴉集 蒼茫日夕時
 風前飛雪散 雲外亂山微
 石底門初閉 松間鶴已歸
 靜中多小趣 便覺少人知

이 시는 거창군 북쪽 金光山(현재의 양각산)에 있는 바위인 陽巖을 제재로 지은 시로, 겨울철 산골의 해질 무렵 풍경을 읊었다. 어둑해지는 저녁에 사방은 고요하고 또 모든 것들이 쉬기 위해 모이는 이때의 흥취는 남들이 알기 어렵다. 특히 ‘少人知’²³⁾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흥취는 외지인이 알 수 없고 오래도록 이 산에 은거하며 주변을 관찰한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한시의 작가인 李繼俊(1490~1558)은 본관이 연안이고 延原君 李崇元の 손자이다. 그는 1522년(중종17) 생원에 입격하였는데, 『사마방목』에는 거주지가 거창으로 나와 있다. 거창 출신인 林薰(1500~1584)과 교분이 두터웠으며, 이

22) 송병순의 시는 『심석재집』에 보이지 않고, 이병연의 시는 『송석집』에 보인다.

23) ‘少人知’는 宋나라 邵雍의 「清夜吟」에 “달은 하늘 한가운데 이르고, 바람은 물 위에 살살 부누나. 이러한 맑고 깨끗한 의미를, 아마도 아는 사람이 적으리.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清意味, 料得少人知.]”라고 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계준의 셋째아들 求仁은 임훈의 딸에게 장가갔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계준의 시는 『조선환여승람』에 가장 먼저 소개되어 있고, 이후에 간행하는 『교남지』(1940), 『거창군지』(1964) 등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에는 이계준 외에도 李巖(宣祖 무렵)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시는 『조선환여승람』에만 보인다. 또한 문집을 남기지 않았거나 발견되지 않은 작가 중 鄭陟(조선 중기)의 시는 權應仁(1517~?)의 『송계만록』과 『조선환여승람』에만 보이며,²⁴⁾ 愼文彬(1519~1593)의 시 역시 張錫英(1851~1929)이 지은 신문빈의 묘지명²⁵⁾에 처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수록한 곳이 바로 『조선환여승람』이다.

거창군에서만 조선 전·중기 작가들의 미발견 시가 발굴되는 것은 아니다. 창녕군의 喜雨樓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金孝貞(1383~?)의 시 역시 『조선환여승람』에 의해 새로이 발굴된 경우이다.

깊은 산속 냇물이 돌아드는 마을에
 늙은 교목이 관아 문을 덮고 있네
 작은 누각 풍경은 외려 보상할 만한데
 글재주 없는 이의 시구가 부끄럽구나
 山廓崇深水抱村 老蒼喬木掩官門
 小樓光景猶堪償 題句惟羞未博文

이 시는 관아 주변과 그에 딸린 회우루의 풍경을 읊은 것이다.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관아는 퇴락하여 쓰러질 듯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용문의 관아는 늙은 교목과 회우루가 잘 어우러져 빼어난 풍광을 연출하고 있으므로 작자는 오히려 글재주가 졸렬하여 이를 시로 다 묘사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24) 『조선환여승람』의 거창군 題詠 항목에 ‘鄭以吾’라고 하였으나, 이는 鄭陟의 잘못이다. 참고로 권응인의 『송계만록』에 정척의 시를 수록하고, 근세 함양군의 무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조선 전기의 鄭陟(1390~1475년)과는 별개의 인물이다.

25) 張錫英, 『晦堂集』 권34, 「資憲大夫戶曹判書諱淵愼公墓誌銘 并序」.

『신증동국여지승람』 靈山縣에는 인용문과 동일한 운자를 사용하는 南在(1351~1419), 李原(1368~1429), 崔宗理(조선 전기), 崔脩(조선 전기)의 시가 수록되어 있지만, 김효정의 시는 수록되지 않았다. 남재와 이원의 시는 그들의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남재의 시 제목은 「靈山喜雨亭」(『龜亭遺稿』 上)이고, 이원의 시 제목은 「次靈山樓詩」(『容軒集』 권2)이다. 또한 남재는 1403년(태종3)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고 이원은 1408년(태종8)에 경상도 관찰사를 부임하였는데, 이들의 시는 관찰사를 맡고 있는 동안 이곳을 순시하러 왔다가 지은 듯하다. 곧 남재의 「靈山喜雨亭」이 원운이고, 나머지는 차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효정은 본관이 선산이고, 李文挺의 외손이다. 그는 문과 및 重試에 급제한 인물로, 집현전부제학, 대사헌 등을 거쳐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그의 시는 『속동문선』에 「金城軒上韻」(권6)이 수록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예안현, 청도군, 고령현 등에 6수의 시가 전할 정도로 문학에도 뛰어난 인물이다. 김효정 역시 1434년(세종16)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했고, 이병연이 細註에서 ‘觀察金孝貞’이라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이 시를 김효정의 시로 비정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조선 시대의 문집은 간행 부수가 많지도 않거니와 편찬 과정 자체도 지난했다. 저자가 자신의 작품을 생전에 스스로 모아둔 경우는 편집 과정이 그나마 수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글을 주고받은 인물을 찾아가서 흠어진 원고를 일일이 수집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또한 문집을 간행하려면 첫째 저자의 글이 있어야 하고, 둘째 이를 지원하는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작가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목판본이나 활자본 대신 필사본으로 전하거나 분량이 많지 않은 여러 사람의 문집을 모아 世稿나 聯芳集의 형태로 간행하였다. 이 지란함은 문집이 간행되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퇴계집』이나 『송자대전』처럼 고증을 거쳐 교감기를 덧붙인 경우가 아니면 사소한 오탃자를 바로잡고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정본화 작업이 필요하다. 근래에 사업을 마친 『율곡집』과 『여유당전서』의 정본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앞에서 문집에 누락되었거나 문집을 남기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발굴하는 역할을 『조선한여승람』이 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작품의 진위를 감별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일종의 ‘준거집단’ 역할에 대

해 서술한다.

밀양의 嶺南樓는 건물의 규모가 크고 화려한데다 시원스럽게 펼쳐진 주변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진주 축석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조선의 3대 누각으로 유명하다. 또한 영남루를 제재로 삼은 제영시가 고려 후기부터 창작되어 후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임진왜란 전후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嶺南樓詩韻』이 있다.²⁶⁾ 이 책은 영남루 관련 건물을 영남루 本堂, 凌波堂, 枕流堂, 客舍 東軒, 德民亭, 攬秀亭의 6개로 구분한 뒤 건물별로 기문, 한시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은 모두 임진왜란 이전에 창작된 것이고 작가 수는 총 412명, 작품 수는 산문 11편, 운문 559수이다. 이 중에 영남루 본당을 대상으로 지은 한시는 260수인데, 이는 李安訥(1571~1637)이 200여 수가 넘는 차운시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도 부합한다.²⁷⁾

이항도 영남루 제영시를 지었는데, 『조선환여승람』에는 아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난간이 높이 솟아 거울 속 하늘을 누르니
한눈에 남녘 풍광이 모두 펼쳐지누나
강은 들관 너머 바다 어귀에서 모이고
땅은 바닷가 걸 변방 산에서 끝이 나네
시 재촉하는 저녁엔 부슬부슬 비 내리고
그림 같은 숲속에선 가물가물 연기 피네
맑은 술잔 잡고 먼 경치 즐기노니
악기 쳐서 좋은 자리 방해하지 말게

26) 전재동(2017); 남권화·전재동(2018). 전재동에 의하면 『영남루시운』 소재 작가 및 작품 수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本堂	凌波堂	枕流閣	客舍東軒	德民亭	攬秀亭	계
작가	202	108	17	41	6	38	412
산문	5	1	1	0	3	1	11
운문	260	183	19	52	5	40	559
소계	265	184	20	52	8	41	570

27) 李安訥, 『東岳集』 권8, 「次嶺南樓舊韻」, “樓舊有詩板, 押天字韻. 自麗季及我國朝, 和者至二百餘篇. 而都七谷·李陶隱諸公之作, 膾炙人口.”

欄干高壓鏡中天 一望荊吳盡眼前
 江蹙海門荒野外 地窮蠻嶺瘴雲邊
 催詩晚日纖纖雨 入畫平林細細煙
 好把清樽供遠賞 不須檀板鬧芳筵

이 시는 높게 자리 잡은 영남루에서 멀리까지 펼쳐지는 경관을 즐기는 정황을 읊고 있다. 남쪽 지방임을 강조하기 위해 ‘荊吳’와 ‘蠻嶺’을 가져왔고, 저물녘 내리는 부슬비와 숲속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황은 이 풍광을 즐기기 위해 맑은 술잔을 조용히 기울일 뿐 굳이 음악을 연주하여 소란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시는 앞에서 언급한 『영남루시운』, 조선 후기의 대표적 지리지인 『여지도서』, 吳弘默의 『咸安叢瑣錄』, 『조선환여승람』에 수록되어 있지만, 정작 『퇴계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황은 밀양의 영남루를 제재로 2편의 시를 창작하였는데, 「嶺南樓」(권1)와 「次季任密陽嶺南樓和朴昌世詩」(권2)이다. 이 중 「次季任密陽嶺南樓和朴昌世詩」는 趙士秀가 영남루에서 朴祥의 시에 화답한 시를 차운한 것으로 모두 22운이다. 柳道源의 『退溪集攷證』에 의하면 이황이 1535년에서 護送官으로서 倭奴를 東萊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지었다고 하며, 위에 인용한 시와는 별개의 시로 본고의 분석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영남루」²⁸⁾이다. 「영남루」는 天, 前, 邊, 煙, 筵을 운자로 사용하는데, 인

28) 『퇴계집』에 수록된 「영남루」는 아래와 같다. 수련에서 경련까지의 의상은 『조선환여승람』의 수록된 시와 비슷하다. 하지만 미련을 보면 『조선환여승람』의 시는 박자 치며 음악을 연주하는 것조차 흥취를 즐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했는데, 『퇴계집』의 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출 정도로 흥에 겨운 모습을 읊고 있다.

누각은 변방 하늘에 우뚝이 솟았고
 좋은 시절 온 객은 국화 앞에 있네
 상강 언덕 푸른 숲 너머로 구름 걷히고
 형양의 흰 기러기 곁으로 수위 낮아졌네
 비단 휘장은 광한전 달을 감싸 있고
 통소 소린 태청궁 연기 속으로 들어가네
 평소에 진실로 시인의 흥취가 있어
 술동이 앞 비단 자리에서 춤을 추노라
 樓觀危臨嶺海天 客來佳節菊花前
 雲收湘岸青楓外 水落衡陽白雁邊

용문의 시와 운자가 동일하다. 「영남루」는 유도원의 『퇴계집고증』에도 나오므로 문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편찬자들의 검증을 거쳐 문집에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환여승람』을 포함하여 『영남루시운』, 그리고 각종의 지리지에는 『퇴계집』 소재 「영남루」가 아니라 인용문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작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오류를 답습하며 이 시를 수록한 것인가. 아니면 이황이 영남루 시 2수를 지었는데, 1수는 문집을 통해 다른 1수는 지리지를 통해 두 가지 경로로 전승되고 있는가.

알다시피 영남루 제영시는 고려 말기 成元度の 시, 곧 하평성 先 운목에 속하는 天, 前, 邊, 煙, 簾을 운자로 사용하여 지은 시를 차운한 시가 주종을 이룬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성원도의 시를 차운한 李崇仁, 李仁復, 權近, 河崙, 柳觀, 李原, 都元興, 金季昌, 申溥, 金宗直, 日本人 龍章, 李胤, 柳順汀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환여승람』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인물들의 시를 모두 빼고 文益漸, 李石亨, 金宗直, 李滉의 차운시만 수록하였다. 이 중 김종직의 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시를 문집에서 추출하였는데, 새로운 시를 소개하려는 이병연의 의도로 보인다.²⁹⁾

이황의 인용문 시는 문집에 수록되지 않고 주로 지리지를 통해 전해지는데, 고증을 거친 문집의 「영남루」와 비교할 때 『조선환여승람』에 수록된 시가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병연은 이황의 시를 경남 지역에 6수 수록하고, 경북 지역에도 20여 수 이상을 수록하였다. 이병연이 『퇴계집』에 어느 정도 정통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조선환여승람』에 수록한 시의 숫자가 이병연 다음으로 많은 인물이 이황이다. 이것은 이병연이 이황의 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곧 이황의 시에 대한 이병연의 지대한 관심, 새로운 시를 추가하

錦帳園將廣寒月 玉簾吹入太清烟
平生儘有騷人興 猶向尊前路綺筵

- 29) 이병연은 여러 종류의 지리지를 참고하여 『조선환여승람』을 편찬하였다. 『조선환여승람』은 1930년 가을에 고종군을 처음으로 출간하기 시작하여 10여 년에 걸쳐 완성되는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간행한 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오류가 없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병연은 수많은 영남루 제영시 중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익히 알려진 시들을 빼고 새로운 시를 발굴하여 『조선환여승람』에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김종직은 『조선환여승람』에 5수를 수록할 정도로 경남 지역 제영시에서 비중이 높은 인물이다. 김종직의 영남루 제영시 중에 성원도의 시에 차운한 「嶺南樓次韻」(권5)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하 각종 지리지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런데도 이병연은 이 시를 빼고 「嶺南樓下泛舟」(권3)를 『조선환여승람』에 수록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시를 소개하려는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려는 『조선환여승람』의 편찬 의도, 각종 지리지에서 이 시를 전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환여승람』에 수록된 이항의 시가 위작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비슷한 사례 하나를 더 들도록 하겠다. 산청군 동쪽에 新安樓가 있는데, 江樓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는 제영시가 없고, 『조선환여승람』에는 聯句詩 1수가 실려 있다. 魚得江(1470~1550), 李迪(?~?), 金守敦(?~?), 姜顯(1486~1553)이 月明寺에서 독서하다가 신안루에 올라 흠뻑 취한 뒤에 1구씩 지어 시를 완성했으며, 네 사람은 모두 문과에 급제했다고 했다.³⁰⁾ 이들이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진나라 미치광이 필 이부가

천년 뒤 우리에게 풍류를 부쳤네

야밤에 흠쳐도 포박하는 이 없는지라

취하여 산에 돌아오니 달이 지려 하네

晉代疎狂畢吏部(魚得江) 風流千載付吾儕(李 迪)

偷來夜半無人縛(金守敦) 大醉還山月欲低(姜 顯)

쫄나라 畢卓은 술을 몹시 즐겨 마셔 酒豪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였다. 그가 이 부랑으로 있을 때였다. 한번은 이웃집에 술이 익은 것을 알고는 밤중에 그 항아리 곁으로 가서 술을 흠쳐 실컷 마시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결국 술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쫄쫄 묶여 있다가 다음 날 아침에야 풀려난 일이 있었다. 이 시는 필탁의 고사를 활용하여 젊은 시절의 객기를 재치 있게 읊은 시이다.

趙秉憲(1800~1870)에 의하면 이 시를 지은 이들은 모두 姜文會(1433~1499)와 연결되어 있다. 어득강과 김수돈은 제자이고, 이적은 조카이자 제자이며, 강현은 그의 아들이다.³¹⁾ 이 시의 작자들이 모두 문과 급제자이고, 또 강문회와 연결되

30) 『조선환여승람』, 「山淸郡·新安樓」, “在縣東五里赤壁江上。一名江樓。魚得江·李迪·金守敦·姜顯四人讀書月明寺, 登樓醉吟, 各賦一句, 以成篇。四人皆登文科, 而姜顯判書。”

31) 趙秉憲, 『肅齋集』 권26, 「姜氏七世行錄」, “男曰文會, 字友仁, 號道遙堂, 官至弘文館校理。博通經傳, 華

어 있기 때문에 이 시의 작자 시비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연구시의 작자들이 『조선헌여승람』과 하나도 겹치지 않는 전혀 다른 계열이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편의상 <盧禎의 『玉溪集』 계열>과 <『조선헌여승람』 계열>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盧禎의 『玉溪集』 계열>

- ㉠ 盧 禎: 晉代疏狂畢吏部(梁喜) 風流千載屬吾儕(李後白) 瓮間盜飲無人縛(姜翼) 大醉還山月欲低(노진)
- ㉡ 林希茂: 晉代疎狂畢吏部(노진) 風流千載付吾儕(이후백) 偷來夜半無人縛(都希齡) 大醉還山月欲低(임희무)
- ㉢ 都希齡: 晉代疏狂畢吏部(노진) 風流千載付吾儕(이후백) 偷來夜半無人縛(도희령) 大醉還山月欲低(임희무)
- ㉣ 李後白: 晉代衣冠畢吏部(노진) 風流千載屬吾儕(吳健) 夜來偷飲無人縛(韓錦山) 大醉還山月欲低(이후백)³²⁾

<『조선헌여승람』 계열>

- ㉠ 李 瑛: 晉代疎狂畢吏部(魚得江) 風流千載付吾儕(金守敦) 偷來夜半無人縛(李迪) 大醉還山月欲低(姜顯)
- ㉡ 李時績: 晉代疎狂畢吏部(?) 風流千載付吾儕(?) 偷來夜半無人縛(?) 大醉還山月欲低(강현)
- ㉢ 金 確: 晉代疏狂畢吏部(?) 風流千載付吾儕(?) 偷來夜半無人縛(?) 大醉還山月欲低(?)
- ㉣ 柳 潛: 晉代疏狂畢吏部(어득강) 風流千載付吾儕(김수돈) 偷來夜半無人縛(이적) 大醉還山月欲低(강현)³³⁾

聞早駭, 見燕山政亂, 無意於世, 遂棄官, 歸丹城別墅, 著逍遙堂記, 以見志. 教誨後學, 學者全集, 如魚得江·金守敦·李迪, 皆其門人. 有三男, 曰隱·損·顯, 隱·損早沒, 顯, 字顯之, 號新安, 諡惠平. ……嘗有大醉還山月欲低之句, 天使適到, 聞之, 歎其詞壇有主.”

32) 盧禎, 『玉溪續集』 권4, 「戲飲聯句 兒皆作」; 林希茂, 『濫溪集』 권1, 「與盧玉溪禎·李青蓮後白·都養性軒希齡聯句」; 都希齡, 『養性軒先生實記』, 「聯句戲題」; 李後白, 『青蓮集』 권3, 「遺事」, “公年未十歲, 在咸陽從師遊學, 一時學徒有盧玉溪·吳德溪·韓錦山. 諸人聯句曰: ‘晉代衣冠畢吏部(玉溪), 風流千載屬吾儕(德溪), 夜來偷飲無人縛(錦山).’ 公時年最, 少續之曰: ‘大醉還山月欲低.’ 議者謂: ‘第四句疏曠之中又有清, 邪氣味[未?]露, 出文章手段.” 이상은 <남명학고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

〈노진의 『옥계집』 계열〉의 연구시 작가 梁喜(1515~1580), 盧禎(1518~1578), 李後白(1520~1578), 吳健(1521~1574), 姜翼(1523~1567), 林希茂(1527~1577), 都希齡(1539~1566), 韓錦山(?~?)은 주로 16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인물들이다. 양희 이하의 작가들을 『조선회여승람』에 수록된 어득강, 강현 등과 비교하면 겹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세대도 어득강, 강현 등보다 한 세대 후배들이다. 게다가 인용문에서 노진과 이후백은 출전에 관계 없이 수록되어 있지만, 다른 작가들은 출전에 따라 참여 여부가 들쭉날쭉하다. 이에 비해 〈『조선회여승람』 계열〉³⁴⁾은 연구시 구절에 작가를 비정하지 않은 것이 있긴 하지만, 4명의 작가가 하나의 연구시를 창작했다는 점은 한결같이 언급하고 있다.

〈『조선회여승람』 계열〉과 〈노진의 『옥계집』 계열〉의 연구시 작가들은 모두 산청 및 인근 지역 출신들이다. 활동 시기도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후배들이 선배들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의 시에 2개 계열의 작가군이 존재하는 것일까.

〈『조선회여승람』 계열〉의 경우 어득강의 『灌圃詩集』(삼간본, 1617)에는 이 연구시가 없다. 이 시를 수록하고 있는 문집의 저자인 李瑛(1585~1635), 李時績(1588~1663), 金確(1615~1690), 柳潛(1880~1951)의 경우 유감을 제외하면 연구시 저자들보다 대략 1세기 뒤에 활동한 인물이다. 하지만 ①『紫園實記』의 「世德總錄」은 이영의 9대손인 李堞壽가 1900년 쓴 것이고, ②이시분의 『운창집』은 1916년 간행되고, ③김확의 『국헌집』이 수록된 『商山世稿』는 1897년에 간행되고, ④유감의 『택재집』은 1994년에 간행되었다.

33) 李瑛, 『紫園實記』 권1, 「世德總錄」, “少時與金翰林守敦·魚司諫得江·姜判書顯居接于校堂。聞涼亭士友家新釀方濃, 乘夜携酒, 至江樓·蝴蝶樓, 痛飲極醺, 各聯成一句。詩曰: ‘晉代疎狂畢吏部(魚司諫), 風流千載付吾儕(金翰林)。偷來夜半無人縛(校理公), 大醉還山月欲低(姜判書)’。”; 李時績, 『雲集』 권2, 「丹城誌·北洞八坊考證」, “第四坊卽溪之左是光陽縣監姜行之居, 其子文會典籍, 其孫顯判書, 卽惠平公也。公在弱冠, 與儔輩數三人讀書於校中, 聞涼亭士友家釀熟, 四人夜行, 到澗園, 負囊跳去, 至江樓上, 痛飲盡醺而歸, 各以七言一句, 詠其事。詩曰: ‘晉代疎狂畢吏部, 風流千載付吾儕。偷來夜半無人縛, 大醉還山月欲低’其末句卽判書之詠, 人知其爲大達”; 金確, 『菊軒集』, 『商山世稿』 권1, 「與魚灌圃得江·姜尙書顯·李校理迪, 讀書府明寺, 聞涼亭友人家酒熟, 赴飲聯句作」, “晉代疎狂畢吏部, 風流千載付吾儕, 偷來夜半無人縛, 大醉還山月欲低”; 柳潛, 『澤齋集』, 「丹邱姓苑」, “姜顯, 文會子。少時, 與魚得江·金守敦·李迪諸人, 讀書校宮, 聞涼亭士友家酒熟, 四人夜到澗園, 盡歡而歸。賦聯句, 曰晉代疎狂畢吏部(魚), 風流千載付吾儕(金), 偷來夜半無人縛(李), 大醉還山月欲低(姜)。四人, 皆登文科。顯, 知三道觀察使, 官至吏曹判書, 諡惠平。” 이상은 <남명학교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

34) 어득강은 문집인 『灌圃詩集』이 전하지만 나머지 3명은 문집을 남기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사정은 <노진의 『옥계집』 계열>도 마찬가지이다. 노진의 『옥계집』(중간본)은 1633년에 간행되지만 연구시가 수록되어 있는 『옥계속집』은 1873년에 간행된다. 이후백의 『청련집』 역시 초간본은 1700년 전후에 간행되지만, 연구시가 수록되어 「유사」는 1962년에 간행된 중간본의 부록에 보인다. 그리고 임희무의 『남계집』은 1901년, 도회령의 『양성헌실기』는 1912년에 간행되었다.³⁵⁾

『조선환여승람』에 수록된 연구시는 작품성이 뛰어나다기보다 신의가 두터운 벗들의 모습과 젊은 날의 호기로우음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시는 개인의 문집에 누락되거나 3~400년이 지난 후에 간행된 문집에 수록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모호해져 두 계열의 작가군이 형성된 듯하다.

그렇다면 두 계열의 작가군 중 누가 연구시를 실제로 창작했을까. 두 계열의 작가군이 여러 문집에 수록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각각 실제 창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느 한쪽을 신뢰할 수 있다 없다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선 연구시의 작가군이 들쭉날쭉한 <노진의 『옥계집』 계열>보다 4명의 작가군이 변함없이 전해지는 <『조선환여승람』 계열>이 좀 더 실제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노진의 경우 ‘아이 때 지은 회작시’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깊은 밤까지 벗들과 거나하게 취하는 내용은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또 연구시의 4구는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될 것임을 알았다.[人知其爲大達.]”, “시원스럽고 맑으며 사뭇 기운이 드러나지 않는다.[疏曠之中又有清, 邪氣未露.]”라는 평가를 받는데, <노진의 『옥계집』 계열>은 4구의 작자가 문집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이런 점을 종합해봤을 때 이병연은 어득강과 강현 등을 실제 창작자로 비정하여 『조선환여승람』에 수록한 듯하다.

4. 맺음말

본고는 일제강점기 사찬 지리지 『朝鮮寰輿勝覽』의 경남 지역 20개 군에 수록된 한시 및 작가를 개관하고 문학적 접근의 유효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35) <『조선환여승람』 계열>과 <노진의 『옥계집』 계열>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문집의 간행연도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한국고전종합DB의 해제를 참고하였다.

『조선환여승람』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방대한 題詠詩를 수록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지 않은 작가의 한시 수는 울산군이 36수, 함안군 35수로 가장 많았다. 울산군에는 19세기 이후 작가의 한시 24수를 수록할 정도로 근현대 작가들의 한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함안군에는 근대 작가들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와 중기에 활동한 인물들의 시도 다수 있었다. 『조선환여승람』에 수록된 한시는 이병연과 김윤환, 이병연의 선조인 이석형 등 이병연과 인연이 깊은 작가들의 시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이황이 창작한 시가 6수인데, 이를 통해 경남 지역에서도 이황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유호인, 이정, 윤환 등과 근대의 김진호, 권순도, 이정혁, 최중민 등 경남 지역 출신들의 시가 많았다.

『조선환여승람』은 해당 지역의 작가와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지역성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조선 전·중기의 金孝貞과 李繼俊의 경우 『조선환여승람』에만 유일하게 수록된 한시가 있었다. 또한 문집과 지리지에 각기 전해지는 이황의 영남루 제영시는 진위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산청군 新安樓의 聯句詩 작가들이 『조선환여승람』 계열과 노진의 『옥계집』 계열로 나뉘었는데, 『조선환여승람』 계열이 실제 창작자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음을 논하였다.

본고는 경남 지역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조선환여승람』 제영시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할 수 없다. 차후 충분한 연구 기간을 확보하여 129개 군 전체에 대한 제영시 현황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환여승람』에는 근대 작가의 한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각 郡의 人物部를 참고하여 이병연이 교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조선환여승람』의 편찬과 유통 과정을 면밀하게 탐색하여 지역별 근대 유림의 주축과 그들의 문학 활동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李秉延, 『松石集』(개인소장)

李秉延 編, 『朝鮮襄興勝覽』(2016, 도서출판 민족문화 영인)

김건곤 편(1997), 『金克己遺稿』,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건우(2022), 「20세기 어느 유학자의 생애와 편찬 활동-송석(松石) 이병연(李秉延)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9,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47~177면.

남권희·전재동(2018), 『(국역)영남루시운』, 경북대학교출판부.

변주승(2006), 「『輿地圖書』의 성격과 道別 특성」,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435~464면.

成均漢文學教室(1990), 『『新增東國輿地勝覽』所載 詩·文 作家別 索引 (Ⅰ)~(Ⅲ)』, 『서지학보』 1~3, 한국서지학회.

전재동(2017), 「密陽 嶺南樓 題詠詩文의 書誌的 分析」, 경북대 박사논문.

허경진(2001), 「『조선환여승람』에 끼워져 있었던 독자와 발행자의 편지들」, 『출판저널』 295, 대한출판문화협회, 40~41면.

허경진·강혜중(2012),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의 상업적 출판과 전통적 가치 계승 문제」, 『열상고전연구』 35, 235~260면.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 <http://nmh.gsnu.ac.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Study of 『Joseonhwanyeoseungram』(朝鮮寰輿勝覽), a Geographical Book Compiled by an Individua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Suh, Jung-hw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Sino-Korean poetry and authors found in the Gyeongnam region of 『Joseonhwanyeoseungram』, a geographical book compiled by an individua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o establish the validity of a literary approach in studying it.

『Joseonhwanyeoseungram』 contains a vast collection of pavilion poetry after the 『Sinjeung dongkukyeojiseungram』. Many of the authors from Ulsan-gun in the collection were from the 19th century onwards. Also, many authors from Haman-gun were active in the early and mid-Joseon period. The compilation includes many Sino-Korean poetry by Lee Byung-yeon himself as well as Kim Yun-hwan and Lee Seok-hyeong who were personally acquainted with Lee Byung-yeon.

In addition, Yi Hwang had a high status and influence in the Gyeongnam region. The compilation consists of poems by Gyeongnam authors, including Yoo Ho-in, Lee Jeong, Yoon Hwon, Kim Jin-ho, Kwon Soon-do, Lee Jung-hyuk, and Choi Joong-min. 『Joseonhwanyeoseungram』 aimed to strengthen local characteristic by discovering local writers and cultural heritage. In the case of Kim Hyo-jung and Lee Kye-jun from the early to mid-Joseon period, their poems could only be found in 『Joseonhwanyeoseungram』.

This paper raised the need to examine the authenticity of Yi Hwang's

* assistant professor, Jeonju University / spr9015@naver.com

Yeongnamru pavilion poetry, which was passed down through the geographical book. In addition, the paper took steps to identify the author of Sancheong-gun Shinanru(新安樓) Yeongusi(聯句詩, successive couplet).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ufficient research perio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pavilion poetry in all 129 guns(郡) and extract their characteristics.

Keywords: 『Joseonhwanyeoseungram』, Lee Byung-yeon, Sino-Korean poetry collection, Sino-Korean poetry discovery, book on humanities and geography(人文地理誌), reinforcement of local characteristic